

## 승용차 연료비(휘발유) 가격상승이 가계의 소비지출 배분에 미치는 영향

황 덕 순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속 향\* (호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과 강사)

본 연구는 소비지출 비목의 가격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승용차 연료비(휘발유) 가격변화가 승용차 연료비 지출규모 및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가계자원(구매력)의 제약으로 인해 승용차 연료비 가격변화가 자체 비목의 지출비율 변화 및 타 비목의 지출비율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는 소비지출 비목의 가격변화와 소비지출의 내재적 구조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해주며 직접적으로는 연료비(휘발유) 가격변화가 승용차 소유가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와 중요도를 규명할 수 있다.

물가연보자료에서 1994년도에서 1997년도까지의 휘발유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휘발유 가격상승이 가장 높았던 1996년도 1분기와 1997년도 1분기 두 시점을 선정하고 두 시기에 승용차 연료비를 지출하였던 651가계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1분기를 선정해서 계절적 변인을 통제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쌍표본(paired) T-검정, 독립표본(independent)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Pearson) 카이스퀘어를 사용하였다.

승용차 연료비(휘발유)의 급격한 상승은 전체 승용차 소유가계의 연료비 지출규모 및 지출비율을 휘발유 가격 상승 분 만큼 증가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많이 증가시키고 있었다. 가계소득은 승용차 연료비의 지출규모 및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소득의 증감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계소득증감에 관계없이 연료비 지출액 및 지출비율은 증가하였다.

휘발유 가격상승이 가계소비지출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6년도 1분기를 중심으로 연료비 지출비율이 감소된 집단, 연료비 지출비율이 비슷한 집단, 연료비 지출비율이 증가된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가계특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구원수(1996년), 가계소득(1996년), 가계소득(1997년)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 집단의 가계소비지출 배분의 변화를 보면, 연료비 지출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집단에서는 타 소비지출 비목의 지출비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연료비 지출비율이 감소한 집단에서는 식료품, 교통통신비, 승용차 연료비 지출비율이 감소하였고 의료비와 교양오락비의 지출비율이 증가하였다. 연료비지출비율이 증가한 집단에서는 식료품, 외식비, 광열비, 승용차연료비 지출비율이 증가하였고 의복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지출비율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비지출 배분의 상충작용(trade-off)측면에서 볼 때, 특정한 비목의 가격상승은 자체 비목 및 전체의 가계소비지출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승용차 연료비 지출비율이 증가한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1997년도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어서 이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